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 - 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

이 혜 정 위 슬 아 김 범 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장기적 종단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의 변화를 살펴보고 공격성의 변화가 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공격성의 유형과 비행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 2,280명과 고등학교 1학년 2,108명을 대상으로 각 학년의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성별과 학교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격성의 경우 중학교 2학년보다 고등학교 1학년의 공격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공격성과 비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절 높은 공격 성향을 보인 경우, 고등학교 시절 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종단 연구로서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공격성의 변화량이 증가할수록 비행의 변화량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공격성, 성차, 공격성 변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 본 논문은 이해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분석 하였음.

[†] 교신저자 : 김범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 031-249-9193, E-mail : bjkim@kyonggi.ac.kr

청소년기는 인간의 전 생애 발달 중 신체적, 생리적 성장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며 독특한 심리적, 행동적 양태가 시작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다(윤진, 박금주, 문은영, 1993).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나 성인에게 의존적이던 아동기 모습으로부터 독립심을 갖춘 자존적인 성인기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인, 주변인 등의 상태로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겪게 된다(배제현, 1993).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함과 불안이 때로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청소년 비행은 시대를 막론한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동으로 여러 측면에서 나날이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흔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인식된다. 그것은 단순히 비행이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진혜민, 배성우, 2012; Loeber & Hay, 1997). 즉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의 경우 1997년 이후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 양상은 학교 및 가정에서의 부적응, 성인기 문제로의 이행, 타인에 대한 피해를 비롯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이경남, 2003). 특히 비행 행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비행 수준이 심각해지고, 지속되며, 범죄와 연계되어 재범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김혜래, 이해원, 2007; 최선희, 김희수, 2006). 이 같은 이유로 청소년 비행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 사회 및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현상이 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요인으로는 주변의 환경, 즉 가정이나 친구 혹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요인

으로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 요소들이 언급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우 심각한 입시 경쟁 하에 있는 청소년들은 성적과 관련된 좌절감, 낮은 자아존중감, 타인의 무시에서 오는 좌절과 그에 대한 저항 등으로 인해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김혜래, 이해원, 2007). 또한, 비행집단에 속함으로써 자신의 열등감을 치유받기도 하여, 비행에 개입하게도 된다(김은하, 2000; 노성호, 1992; Shears, Edwards, & Stanley, 2006). 하지만, 무엇보다 비행이나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속성 중 하나는 공격성이다(van Manen, Prins, & Emmelkamp, 2004).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장기적 연구보다는 횡단적 연구 방식으로 주로 수행되었다(윤진 등, 1993; 강미량, 염시창, 2008; Vitrao, Larocque, Janosz & Thremblav, 2001). 즉, 대부분의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각 변수의 지속성이나 변화보다는 횡단적 측면에서 공격성의 수준이나 비행의 정도를 살펴보거나 횡단적 시점에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격성과 비행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횡단적 자료보다는 장기적 변화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하겠다. 또한, 과거에 비해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차에 따른 공격성과 비행 수준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이 같은 지표의 장기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데이터 2011년 중학교 2학년 자료와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자

료를 가지고 공격성 변화가 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격성과 비행의 성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는 기존의 공격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재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 종단적 자료를 통해 공격성의 변화가 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저지르는 비행행위이다. 비행은 주로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용어이다(민수홍, 2005; 송광섭, 2003). 비행은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대부분의 행동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송광섭, 2003). 즉, 비행은 일탈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법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행은 범법 이전의 부적응 행위까지 포함하며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장래에 범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도 내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소년법 법률 제4067호). 즉,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사회의 가치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과 같이 심각성이 덜한 행동을 포함한다. 또한, 심리적 고통과 관련되는 왕따, 형벌 법규에 규정된 신체적 폭행이나 금품갈취, 절도 등과 같은 범죄적 비행까지 다양한 유형의 일탈행위를 포괄한다.

또한, 소년법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년법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 비행의 주체를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③ 해당하는 사유(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나눈다. 이처럼 청소년 비행은 매우 다양한 행동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과 범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폭행, 집단따돌림, 패싸움, 협박, 뺑 뜯기(물건 빼기), 절도, 성 관련 범죄를 비행으로 보고자 한다.

2012년 서울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초, 중, 고 재학 중인 청소년 13,686명 중에서 음주경험(20.7%), 흡연경험(10.4%), 가출경험(7.1%), 친구를 따돌린 경험(15.0%), 친구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한 경험(13.2%),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본 경험(7.8%)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음주경험은 9.1%, 흡연경험 2.7%, 따돌림 경험이 4.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비행이 여러 면에서 점점 더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행태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비행이 폭행, 절도, 음주, 흡연 문제 등 지위비행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어른 못지않게 강력한 범죄행위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가

정, 학교 및 또래 요인 등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뉘볼 수 있다(탁분희, 2006).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정 관련 변인의 경우, 가족의 유형, 가구 소득과 같은 가족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iblarz & Gottainer, 2000). 이에 반해, 부모의 양육태도, 학대, 가정 폭력 등 역기능적인 면들은 비행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서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정소희, 2006). 즉, 부모의 자녀학대는 가정의 기능적인 결함을 가져오고 이런 가정 환경이 청소년 비행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탁분희, 2006).

학교 및 또래 관련 변인 역시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미 있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성적 위주의 치열한 분위기나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생활은 비행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수의 학생만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현실에서 다수의 학생은 실패감 혹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아개념 역시 낮아지게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같은 심리적 문제들은 학교생활 포기, 낮은 비율의 교내활동, 무단결석 등의 비행으로 연결되기도 한다(Finn, 1989). 또한, 좌절감에 따른 저항감은 분노와 불안을 일으키며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비행집단에 가입하여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을 보상 받으려고 한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속한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속감을 공유하고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또래집단 속에서의 관계가 비행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주리, 2008).

집단 안에서 사회 유대를 느끼게 되면 부모, 교사와의 애착과 마찬가지로 비행 유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된다(Hirschi, 1969). 하지만 비행 친구의 경우는 그 수가 많을수록 학습을 통해 비행을 배우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Elliott & Menard, 1996; War & Stafford, 1991).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또래에게 거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Crick & Grotpeter, 1995) 이것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며, 낮은 학업성취를 하게 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결국 비행으로 연결될 수 있다(Vitaro et al., 2001).

청소년 비행과 관련되는 심리적 변수로는 자기통제(Feldman & Weiberger, 1994), 공격성과 충동성(민수홍, 1996; Rutter, 1990), 불안과 우울(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자아개념, 자아존중감(Owens, 1994) 등이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은 비행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동성, 공격성, 그리고 우울은 비행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진혜민, 배성우, 2012).

공격성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공격성은 개인 내면의 성격적인 변인으로서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공격적 반응이라고 정의되었다(Buss, 1961). 보통 공격성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도구적 공격성과 타인에게 고통이나 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적의적 공격성을 포함하며(장양자, 2001),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심리적 혹은 신체적인 해를 범하려는 행

동성향 및 동기를 의미한다(Berkowitz, 1989; Brehm & Kassin, 1990; Morris, 1988).

공격성 역시 비행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개인의 우울 및 불안, 자존감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때문에 공격적 성향이 지속된다(문금순, 1993). 즉,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가 낮아 자아가 위협받았다고 느낄 때 공격성이 발현될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오현숙(2000)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낮은 공격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에 있어서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금란, 1997).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정서 억제능력인 자기통제력 및 자제력이 낮은 경우,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기는 좌절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공격성향을 잘 드러낸다(강지원, 김성이, 구본용, 황순길, 1996).

부모가 자녀의 욕구불만 해소를 통제하거나, 공격행동 후에 주어지는 강화나 처벌을 통해 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 자녀 간에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자녀의 공격성향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원, 1997).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부모 간에 자율과 통제에 대해 양육태도가 일치할수록 자녀의 자아 존중감은 더 높아지고 이는 위기의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공격적 성향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교사와의 관계나 또래와의 관계 역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비롯해 학생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하게 되면

학생의 공격성은 완화된다(정재임, 2000). 그 결과, 비행이나 일탈행동이 감소하게 된다(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가정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것처럼, 학생과 교사와 관계 즉, 교사와의 애착관계는 공격성향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격성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안정적인가? 아니면 변화할까? 공격성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의 결과들에 따르면, 공격성이 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동기, 홍세희, 2007; 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동기와 홍세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중2부터 고1까지 공격성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Loeber와 Stouthamer-Loeber(199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발달시기에 따라 공격성의 변화가 있었다. 13세부터 15세 사이에 공격성이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다른 두 표집을 사용한 박종효(2007)와 이창호, 양미진, 이희우 및 이은경 (2005)의 연구 역시 공격성과 문제행동이 초등학교 시기에 꾸준히 증가하다가 중학교 3학년에 정점을 이룬 후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완만하거나 안정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과 청소년 비행

청소년 비행은 불안정한 시기를 겪는 청소년들이 반사회적 행동을 표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변인은 공격성이라고 할 수 있다(박현선, 김유경, 1997; 이에령, 2004; Dryfoos, 1989; Kastner, 1998). 공

격성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 볼 때, 그 양상이 비교적 시간의 흐름상에서 안정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Broidy, Nagin, Tremblay, Bates, Brame, Dodge, Fergusson, Horwood, Loeber, Laird, Lynam, Moffit, Pettit, & Vitaro, 2003).

공격성의 경우, 청소년 초기 자신이 가진 공격성을 적절하게 발산하지 못할 경우에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진섭, 2009; Lober & Stouthamer-Loeber, 1998). 또한, 공격성은 집단 따돌림과 같은 괴롭히는 가해 행동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예언변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혜원, 이해경, 2001), 비행행동의 원인을 말할 때 공격성향과 반사회적 성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현수, 김현실,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 존중감은 공격성 및 비행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박영신, 김의철 및 김영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정서적 지원을 할수록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양육에 있어 학대를 경험한 자녀일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거부적이며, 무관심하고 애정이 부족할수록 자녀는 더 공격적, 반사회적이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신효정, 이문희, 2014).

이남희와 이봉건(2009)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범법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비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PAI 성격검사를 이용하여 공격성을 측정하였는데, 범죄 유형에 따라 공격성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이나 공갈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절도를 저지른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공격성향을 보였다. 또한, 공격성 중 언어적 공격성은 공갈 범죄를 예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공격성이 범법적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범죄 비행의 유형에 따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의 유형 또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공격성, 비행, 그리고 성차

성차를 남녀 간의 차별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Wood & Eagly, 2010). 공격행동의 한 형태인 범죄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남성 범죄자의 비율이 76.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대검찰청, 2004-2014). 이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더라도 심리학적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공격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정경택, 2003;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Williams & Best, 1990). 예를 들어, Maccoby와 Jacklin(1974)은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조사한 결과, 범문화권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공격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Hyde(1984) 역시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서 공격성의 양상이 변화하였는데, 학령기 이전부터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큰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지만, 대학생 이후에 그 차이는 작아졌다. 또한, 이후에 이루어진 Archer(2004)의 연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공격적 성향을 보이며, 성인보다는 미성년의 경우, 성차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공격성이 높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들도 있다(Parke & Slaby, 1983). 이 같은 결과들은 주로 공격성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경우에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문 퍼뜨리기, 다른 사람 또래집단에서 소외시키기와 같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형태인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 남아보다 여아가 공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김민정, 도현심, 2001; Crick & Grotpeter, 1995). 또한, 심희옥(2007)의 연구와 Crick, Casas & Mosher(1997)의 연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유형을 나누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실제적인 공격성이 표출되는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아마도 생물학적 측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남학생은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며, 여학생은 관계적 형태에 더욱 의존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jörkqvist, 1994). 또한,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남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이 여학생들의 그것보다 더 잘 수용되는 사회의 차별화된 반응 때문에 이 같은 성차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남학생에게는 외현적 형태의 공격성에 개입하게 하고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관계적 형태의 공격성에 개입하게 만든다는 것이다(Underwood, 2003).

공격성과 비행에 있어서 성차는 발달적 측면에서 설명되기도 한다. 발달적 측면에서 청소년기는 사춘기로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사춘기의 발현은 일반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더 일찍 일어난다. 이

같은 성적으로 조숙해지는 시기의 차이로 공격성과 비행에 있어서 성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기 발달에서 일찍 조숙한 여학생들은 또래와 비교해 볼 때 성숙 정도에 있어 일탈 정도가 심할 경우, 스스로가 강한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게 될 수 있다. Cavanagh, Riegel-Crumb 및 Crosnoe(2007)의 연구에 의하면 성적으로 조숙한 청소년일수록 자신의 신체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우울, 높은 공격성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또래 집단 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흡연, 음주, 성관계와 같은 문제행동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숙한 여학생들의 공격성과 문제행동은 조숙한 남학생의 특징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Najman, Hayatbakhsh, McGee, Bor, O'Callaghan, & Williams, 2009). 조숙한 여학생들은 심리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석, 규칙위반, 흡연, 음주 등 학교생활에서의 문제행동, 성행위, 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endle, Turkheimer, & Emery, 2007).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예성과 안재진(2015)의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 성숙 시기가 빠른 여자 청소년들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청소년 초기에 진입하게 되면 남녀 모두 사회적 기술이나 사회 인지 능력의 습득으로 관계적 공격성에서의 성차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도현심, 2005). 또한 Silverthorn과 Frick(1999)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이 지연되어 발달하는 특성이 있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갈

수록 외현적 공격성 또한 성별 차이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격성과 비행행동에 있어서 성차의 문제는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통해, 공격성과 비행의 수준과 이에 대한 성차 효과를 알아보고,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다시 한 번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종단적 자료 분석을 통해 공격성과 비행의 변화와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KCYPS) 중에서 중1 패널의 제2차(2011년) 데이터와 제4차(2013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1년 2차 조사의 응답자(중학교 2학년)는 2,280명(남자 1,152명, 여자 1,128명)이었으며, 2013년 4차 조사의 응답자(고등학교 1학년)는 2,108명(남자 1,075명, 여자 1,033명)이었다. 최초 패널의 선정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즉 16개 시도를 27개의 집락으로 나누고, 집락별로 할당된 표본학교를 추출, 학급 수에서 난수를 발생시켜 1개 학급이 무작위 추출되었다. 1차 조사시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가 이루어졌고, 2차-4차시에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공격성

조사에 사용된 공격성 척도는 조봉환과 임경희(2013)가 개발한 정서·행동문제 척도 40 문항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과 공격행동 요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요인 4에 공격행동 요인에 해당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매우 그렇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공격성의 하위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내용과 통계적 요인분석을 근거로 문항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문항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의 4개 문항이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고,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의 2개 문항이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의 신뢰도는 중학교 2학년 시기는 Cronbach의 α 계수가 .81이었으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Cronbach의 α 계수가 .79였다.

비행 경험

비행은 원 자료에서 조사된 14가지 항목 중 성 관련 비행을 제외한 11개 비행만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비행 정도는 각 비행에 대해 지난 1년간의 경험 유무를 묻는 것이었으며, 이를 합산하여 비행 정도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은 다음과 같다: '담배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헐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뺨 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결 과

공격성의 정도

전반적인 공격성 정도

먼저 두 번의 조사시점에서의 청소년들의 공격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중학교 2학년 시기의 공격성 정도는 4 점 척도 상에서 평균이 2.13(0.57)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값인 2.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값으로 패널 집단의 공격성향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t(2277) = -31.03, p < .001$). 그리고 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는 공격성의 평균이 1.97(0.53)이었으며, 이 역시 중간 값인 2.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 패널 집단의 공격성 수준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다($t(2108) = -46.53, p < .001$).

공격성의 변화

다음으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2학년 때의 공격성 평균과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공격성 평균 간의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평균값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080) = -12.02,$

표 1. 학년에 따른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2	고1	t
공격성	2.13 (0.57)	1.97 (0.53)	-12.02***

주) *** $p < .001$

$p < .001$). 즉 중학교 2학년 때의 공격성향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공격성향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향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성숙도가 높아져 자신의 공격적 성향을 좀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유는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흔히 중 2병이라고 하는 현상이 아마도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공격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별에 따른 공격성 차이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조사 대상 패널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공격성 평균값은 2.01(0.57)이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 평균값은 2.16(0.57)이었다. 즉 공격성향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079) = -2.64, p < .001$). 그리고 이 같은 성차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조사 대상 패널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표 2.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 년	남자	여자	t
중2 공격성	2.01 (0.57)	2.16 (0.57)	-2.64***
고1 공격성	1.94 (0.51)	2.00 (0.54)	-2.44***

주) *** $p < .001$

남학생의 공격성 평균값은 1.94(0.51)이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 평균값은 2.00(0.54)이었다. 즉 공격성향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06)=-2.44, p<.001$).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학교 2학년 시기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의 성차관련 연구에서 주로 나타났던 여성에 비해 남성의 공격성이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정경택, 2003; Hyde, 1984;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Maccoby & Jacklin, 1974). 하지만, 남성 청소년에 비해 여성 청소년의 공격성이 더 높다는 Parke와 Slaby(1983)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할 때,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가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 논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비행 경험

비행 경험의 정도

본 조사에서는 11가지 비행에 대해 지난 1년간 자신이 각 비행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점수는 조사 패널이 경험한 비행항목

표 3. 학년에 따른 개입 비행 평균과 표준편차

	중2	고1	t
비행	0.33 (0.92)	0.33 (0.79)	0.29

만을 합산하였다. 즉 비행점수는 지난 1년간 각 패널 대상자 개인이 몇 가지 비행에 개입했는가를 의미하도록 산출하였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때에는 11개 비행에 대해 평균 0.33(0.92)회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평균 0.33(0.79)회였다(표 3 참조). 그리고 이 같이 개입한 비행의 수에는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2082)=0.29, p=.771$).

성별에 따른 비행 경험 차이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비행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조사 대상 패널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비행 경험의 평균값은 0.44(1.05)였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비행 경험의 평균값은 0.22(0.76)였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081)=5.50, p<.001$).

표 4. 성별에 따른 개입한 비행의 평균과 표준편차

학 년	남자	여자	t
중 2	0.44 (1.05)	0.22 (0.76)	5.50***
고 1	0.50 (0.94)	0.16 (0.56)	10.04***

주) *** $p<.001$

그리고 이 같은 성차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조사 대상 패널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남학생의 비행 경험의 평균값은 0.50(0.94)이었던 것에 비해, 여학생의 비행 경험의 평균값은 0.16(0.56)이었다. 즉, 중학교 시절과 같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더 다양한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06)=10.04, p<.001$).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시기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다양한 비행 행동에 개입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의 비행연구들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현실, 2002; Rantakallio, Myhrman, & Koiranen, 1995). 즉 비행에는 성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격성과 비행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패널의 조사 시기별로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조사시기의 공격성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비행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중학교 2학년 시기의 경우, 공격

성은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 즉,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 F(1, 2276)=65.57, p<.001$).

이 같은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β 값이 .20으로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4, F(1, 1150)=45.52, p<.001$).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에게 있어서도 같아($R^2=.02, F(1,1124)=25.88, p<.001$)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는 성차가 없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시기 역시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공격성은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 즉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2, F(1, 2106)=45.72, p<.001$). 이 같은 결과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비행에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또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 조금 감소하는 경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고등학교 시기에도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β 값이 .16으로

표 5.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중학교 2학년)

독립변수	β	R^2	t
공격성(남)	.20	.04	6.75***
공격성(여)	.15	.02	5.09***
공격성(전체)	.17	.03	8.10***

주) *** $p<.001$

표 6.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고등학교 1학년)

독립변수	β	R^2	t
공격성(남)	.16	.03	5.31***
공격성(여)	.17	.03	5.43***
공격성(전체)	.15	.02	6.76***

주) *** $p<.001$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3$, $F(1, 1064)=28.16$, $p<.001$).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시기 여학생에게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남으로써($R^2=.03$, $F(1, 1015)=29.43$, $p<.001$)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는 고등학생 시기 역시 성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종단적 연구의 장점은 과거의 지표가 미래의 얼마나 예측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 때의 공격성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비행을 얼마나 예측하는가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7에 제시된 것처럼, 공격성은 비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2$). 즉 중학교 시기의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14$, $F(1, 2079)=29.11$, $p<.001$). 이 같은 결과는 중학교 시기의 공격 성향이 미래인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중학교 시기의 공격성이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로 구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β 값이 .15로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2$, $F(1,$

$1064)=24.98$, $p<.001$).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에게 있어서도 같아($R^2=.01$, $F(1, 1013)=13.20$, $p<.001$) 중학교 시기의 공격성이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역시 성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공격성 변화와 비행 변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격성은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예언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공격성의 변화는 비행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까? 따라서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공격성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변화하는 것에 따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이 개입하는 비행의 변화량도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격성의 변화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공격성 점수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의 공격성 점수를 빼서 그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비행의 변화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개입한 비행의 수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개입한 비행의 수를 빼서 그 지표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변화와 비행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공격성 변화를 독립변수로 하고 비행변화를 종속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

표 7. 중학교 때의 공격성이 고등학교 때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β	R^2	t
공격성(남)	.15	.02	5.00***
공격성(여)	.11	.01	3.63***
공격성(전체)	.12	.01	5.40***

주) *** $p<.001$

표 8. 공격성의 변화가 비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순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β	R^2	t
공격성(남)	.03	.001	1.08
공격성(여)	.07	.004	2.26*
공격성(전체)	.05	.002	2.15*

주) * $p<.05$

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공격성 변화는 비행 변화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 즉 공격성의 변화가 클수록 비행의 변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2$, $F(1, 2079)=4.64$, $p<.05$). 이 같은 결과는 공격성이 증가할수록 비행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 같은 변화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공격성의 변화에 따라 공격성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R^2=.001$, $F(1, 1064)=1.16$, $p=.282$).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달리 β 값이 .07로 공격적 성향으로 변할수록 비행의 경험의 변화도 미약하지만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2=.004$, $F(1, 1013)=5.09$, $p<.05$).

이러한 결과는 공격적 성향이 더 공격적인 것으로 변화되면, 비행의 변화가 더 많아지는 데 이 같은 경향은 여학생에게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남학생에게 있어서 공격성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 사이에 비행에 개입한 경험에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은 아마도 천정효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추론은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과 비행 경험의 변화를 종단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또한, 공격성과 비행경험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종단

적 연구를 통해 공격성이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영향에 있어서 성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모두, 공격성의 수준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성의 수준은 중학교 시기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격성 수준에 있어 성차가 뚜렷하여,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모두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비행경험의 경우, 11개의 비행 유형의 경험 유무만을 보았을 때, 비행 경험의 평균은 0.33회였으며, 이 같은 경향은 중학교 시기나 고등학교 시기에 따른 변화가 없으므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행 경험에 있어서 성차가 있었다. 즉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이 더 많은 비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차이는 중학교 시기나 고등학교 시기 모두에서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체 학생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더 많은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경향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모두 동일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영향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모두에서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학교 시기의 공격성향이 미래의 비행 경험 즉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경험을 잘 예측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 시기에 공격성향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시기에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비

행을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격성이 변하면 비행경험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공격적으로 될수록 더 많은 비행에 개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영향은 여학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김현수, 김현실, 2004; 김혜원, 이해경, 2001; Lober & Stouthamer-Loeber, 1998)에서 밝혀진 것처럼, 공격성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향이 높으면 높을수록 비행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영향은 중학교 시기나 고등학교 시기 모두에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학교 시기의 공격성향은 고등학교 시기의 비행 경험을 잘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에서 주장되었던 것처럼, 공격성은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행동들을 예측하는 좋은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김현수, 김현실, 2004; 김혜원, 이해경, 2001).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비행경험의 장기적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 공격성향의 변화가 비행 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격성의 변화가 비행경험의 변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공격성이 비행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준거변수가 된다는 것보다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 연구 결과의 폭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되면, 공격성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Loeber와 Stouthamer-Loeber(1998)의 연구에서 청소년 발달시기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에 대해 13세부터 15세 사이에 공격성이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것과 같이, 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 인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성숙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을 조절함으로써 공격성향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공격 성향은 성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2학년 시기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통념 혹은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된 것이다(정경택, 2003; Hyde, 1984;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Maccoby & Jacklin, 1974). 이 같은 결과에 가능한 하나의 설명은 공격성의 하위 유형에 따라 성차가 달라진다는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들 들어, 심희옥(2007)이나 Crick, Cases 및 Mosher(1997)의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한 경우, 외현적 공격성에서는 여자에 비해 남자가 공격성향이 더 높은 반면에 관계적 공격성의 경우에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공격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도현심, 2001; Crick & Grotpeter, 1995).

이 같은 가설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공격성 척도를 연구자가 임의로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으로 공격성을 구분하여 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공격성의 경우, 조사 대상 패널이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남학생의 평균값은 2.20(0.63), 여학생의 평균값은 2.18(0.60)로 남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이 약간 높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2080) = 0.91, p = .36$).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남학생의 평균값이 2.07(0.58), 여학생의 평균값이 2.02(0.5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외현적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106) = 2.22, p < .05$).

반면 관계적 공격성에서는, 중학교 2학년 패널 가운데 남학생의 평균값이 1.88(0.68), 여학생의 평균값은 2.13(0.73)으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080) = -8.05, p < .001$).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서 남학생의 평균값은 1.67(0.61), 여학생의 평균값은 1.95(0.70)로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106) = -9.77, p < .001$).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공격성은 단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격성의 하위 요인에 따라 성차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공격성의 하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척도를 이용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검증을 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 관계적 속성에 중점을 두는 관계적 공격성과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외현적 공격성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해 보았으며, 6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비교하여 분석한 데에 의의가 있으나,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문항의 한계로 인해 세부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둘째, 중학교 2학년 때의 공격성향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의 공격성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향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나 그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유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중학교 2학년 시기나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모두 남자들에 비해 여자들의 공격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아직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관계적 공격성과 여학생의 공격성 표현 전략 등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풍부한 실증적 자료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공격성의 수준이 감소하고 비행 행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비행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다 명확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중학

교와 고등학교만이 아닌 전 연령층의 자료를 사용하여 보다 명확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공격성과 비행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성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비행 유형에 있어서도 성차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 비행에 있어 신체적 폭력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대화에서 소외시키기 등 은밀하고 관계적인 폭력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학생의 관계적 특성과 연관되는 비행 유형에 대한 다양한 국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량, 염시창 (2008).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31, 89-102.
- 강지원, 김성이, 구본용, 황순길 (1996). 청소년 비행상담.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동기, 홍세희 (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2), 21-42.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 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도현심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일탈 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집단의 환경,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아동교육*, 13(2), 201-219.
- 김예성, 안재진 (2015). 사춘기 성숙시기에 따른 여자청소년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 공격성과 학교규칙 준수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41, 40-63.
- 김은하 (2000).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 비행학생의 성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현수, 김현실 (2004). 한국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변인 및 표출 경로. *신경정신의학회*, 43(1), 75-84.
- 김현실 (2002). 한국 청소년 비행의 성차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4), 492-505.
- 김혜래, 이해원 (2007). 학교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비행과의 관계: 지위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23, 33-62.
- 김혜원, 이해경 (2001).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탐색: 초, 중, 고등학생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1), 183-210.
- 노성호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대검찰청 (2004-2014). *범죄분석*.
- 문금순 (1993).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민수홍 (1996). 비행의 조기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민수홍 (2005).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분석.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17-339.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종단분석: 심

- 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14.
- 박중효 (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9-230.
- 박현선, 김유경 (1997). 가족관계와 청소년비행: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32, 113-135.
- 배제현 (1993). 비행 청소년과 정상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비교. 재활심리연구, 1(1), 71-83.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2). 2012년도 서울시 청소년위기실태조사 연구자료.
- 소년법 법률 제4067호의 제4조 1항 1호, 2호, 3호 참조.
- 송광섭 (2003).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 형사정책, 15(2), 193-223.
- 송지원 (1997). 청소년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신효정, 이문희 (2014). 애착외상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291-312.
- 심희옥 (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07-1118.
- 오현숙 (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 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유금란 (1997).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잠재비행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윤진, 광금주, 문은영 (1993). 한국 청소년 비행 연구의 동향과 심리학적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7(1), 12-27.
- 이경남 (2003).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11, 197-214.
- 이남희, 이봉건 (2009). 비행청소년의 범죄유형에 따른 재범 위험성 차이에 관한 연구-비행촉발 요인 조사서와 PAI 검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27-140.
- 이에령 (2004). 청소년 비행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주리 (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학회지, 17(4), 563-574.
- 이창호 · 양미진 · 이희우 · 이은경 (2005).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임진섭 (2009). 청소년비행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2SLS(2 Stage 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4), 101-126.
- 장양자 (2001). 인지행동적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공격성,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정경택 (2003).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교육학회, 12(2), 151-162.
- 정소희 (2006). 가족구조 부모양육행동 및 청소년비행.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재임 (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 논문.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 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최선희, 김희수 (2006). 아동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 상호작용. *한국아동복지학*, 21, 233-258.
- 탁분희 (200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현명선, 김경희, 김선아 (2004).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34(2), 252-260.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 291-322.
- Berkowitz, L. (1989). Frustration - aggression hypothesis: Examination and re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06, 59-73.
- Biblarz, T. J. & Gottainer, G. (2000).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success: a comparison of widowed and divorced single-moth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533-538.
- Bjö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30(3/4), 177-188.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 179-192.
- Brehm, S. S. & Kassin, S. M. (1990). *Social psychology*. Boston: Houghton Mifflin.
-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Fergusson, D., Horwood, J. L., Loeber, R., Laird, R., Lynam, D. R., Moffit, T. E., Pettit, G. S., & Vitaro, F.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245.
- Buss, A. H. (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Y: Wiley.
- Cavanagh, Riegel-Crumb & Crosnoe. (2007). Puberty and the education of girl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2), 186-198.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 (1997).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79-588.
- Dryfoos, J. G. (1989). *Adolescents at ris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lliott, D. S. & Menard, S. (1996). *Delinquent friends and delinquent behavior: Temporal and developmental patterns*. In *Delinquency and crime: Current theories*, edited by J. D. Hawkin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2), 179-204.
- Feldman, S. S. & Weiberger, D. A. (1994). Self-restraint as mediator of family, delinquent

-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5), 195-211.
- Finn, J. D. (1989). Withdrawing from school.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9(2), 117-142.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Free Press.
- Hyde, J. S. (1984). How large are gender differences in aggression? A developmental meta-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722-736.
- Kastner, J. W. (1998). Clinical change in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 A group therapy approac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Group Therapy*, 8, 23-33.
- Loeber R. & D, Hay.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Hom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Psychologist*, 53, 242-259.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Mendle, J., Turkheimer, E, & Emery, R. E. (2007). Detrimental psychological outcomes associated with early pubertal timing in adolescent girls. *Developmental Review*, 27, 151-171.
- Morris. C. G. (1988). *Psychology: An introduction* (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 Najman, J. M., Hayatbakhsh, M. R, McGee, T. R., Bor, W, O'Callaghan, M. J., & Williams, G. M. (2009). The impact of puberty on aggression / delinquency: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2(2), 369-386.
- Owens, T. J. (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n aggression*. In E. M. Hetherington(Eds.). P. H. Mussen(Sea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4. New York: wiley.
- Rantakallio, P., Myhrman, A., & Koiranen, M. (1995). Juvenile offend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sex differences. *Social Psychiatric Epidemiology*, 30, 113-120.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ears, J., Edwards, R. W. & Stanley, L. R. (2006). School bonding and substance use in rural communities. *Social Work Research*, 30(1), 6-18.
- Silverthorn, P. & Frick, P. J. (1999). Developmental pathways to antisocial behavior: The delayed-onset pathway in girl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1), 101-126.
- Underwood, M. K. (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ew York: Guilford Press.

- van Manen, T. G., Prins, P. J. M., Emmelkamp, P. M. G. (2004). Reducing aggressive behavior in boys with a social cognitive group treatment: Result of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3, 1478-1487.
- Vitrao, F., Larocque, D., Janosz, M., & Thremlav, R. E. (2001). Negative social experiences and dropping out of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312-319.
- War, M. & Stafford, M. (1991). The influence of delinquent peers: what they think of what they do?. *Criminology*, 38, 931-964.
- Williams, J. E., & Best, D. L. (1990). *Measuring sex stereotypes: A multinational study*. Newbury Park, CA: Sage.
- Wood, W., & Eagly, A. H. (2010). Gender. In S. T. Fiske & D. T. Gillbert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5th ed. Vol. 1, pp. 629-667).
- 1차원고접수 : 2015. 10. 26.
심사통과접수 : 2015. 11. 30.
최종원고접수 : 2015. 12. 15.

A Study of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 -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and Change -

Hye Jung Lee

Seul Ah Wi

Beom Jun Kim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rough longitudinal approach,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transition of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t behavior during teenage years and the effect of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 Particularly, forms of aggression and gender difference are investigated. 2,280 8th grade students and 2,108 10th grad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ed, in terms of aggression, 10th grade students have lower aggressive tendencies compared to the 8th grade students. Cor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Juvenile delinquency showed that not only aggression has positive effect on delinquency, but also middle school students with higher aggressive tendencies tend to show higher level of delinquent behavior as they proceed to high school education. We have found tha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domains; as the level of aggression rises, so does the frequency of delinquent behavior. In terms of gender, female students have higher aggressive tendencies compared to male students regardless of the grade level difference.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Aggression, Gender difference, Change of aggression,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KCYPs)